

2027
수능 국어

- EBS 연계 문학 작품 분석집
- 수능특강 전 작품 수록

더아 연계 문학 특강 - E 수능 특강 문학 분석 집 현대시

- ✓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강의와 연계하여 2027학년도 수능 문학 완벽 대비
- ✓ 2027학년도 수능 현대시 전 작품 및 기출(수능 · 모평 · 학평) 전 문항 수록
- ✓ 2026학년도 수능의 EBS 연계 경향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 방향 제시
- ✓ 심도 있는 분석과 친절한 해설로 자기 주도 학습 가능

박광일 지음

혼자서 공부하기 부담스러운 수험생을 위한 강의

박광일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

[현대시] EBS 연계 학습을 단시간에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해 강의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EBS 연계 문학 강의 [바로 보기]



EBS 연계 문학 작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는 수험생에게

훈련도감-E 수특정복 현대시가 답인 이유!

1

훈련도감-E 수특정복 시리즈만으로
EBS 연계 학습 완성

EBS 연계 교재의 출제 요소와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핵심 출제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작품 해설과, 교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플랜을 통해 이 시리즈만으로 EBS 연계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EBS 연계 교재의
모든 작품 분석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모든 현대시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최신 수능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 해석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작품의 내용과 특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과 함께하면 **좋은 점**



첫째 가장 현실적인 EBS 연계 학습 가능

EBS 연계 작품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을 위해 박광일 선생님이 최신 수능 출제 경향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EBS 연계 문학 전 작품 강의를 제공합니다.

둘째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구성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심도 있게, 출제 가능성이 낮은 작품은 핵심만 짚어 강의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강의를 따라오면 어느새 EBS 연계 학습 완료

박광일 선생님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 강의를 통해 작품별 학습 강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해 EBS 학습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포인트를 도식화하여
학습 효율성 극대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전에서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출제 요소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

**EBS 연계 작품과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와 해설 수록**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작품들은 해당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
수록했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 원리를 익히고 실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5

**언제나 열려 있는 Q&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이투스(<https://www.etoos.com>)
박광일 선생님의 Q&A 게시판을
활용해 보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공부를 도와드립니다.

구성과 특징

✓ 작품 핵심 키워드

작품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제목 아래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전에서 작품의 핵심 출제 요소를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작품 풀어 읽기

작품 본문을 수록하고 실전에 필요한 작품의 특징과 해석의 방향을 안내하여 수능형 사고에 맞는 작품 해석 기준을 제공합니다.

✓ EBS는 이렇게 물었다 + α

- **E**는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적절한 선지를 정리한 것으로, 연계 교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α**는 EBS 연계 교재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한 것으로, 근거가 되는 구절 바로 옆에 수록하였습니다.

손택수, 차심

KEYWORD #수용과 인내 #금을 매우는

차심

KEYWORD #수용과 인내 #금을 매우는 차심 #단단해지는 인간관계 #상처의 효

작품 풀어 읽기

차심이라는 말 ^{α1}있지 않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힘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힘

찾잔을 닦지 않아 ^{E1}물이끼가 끼이는 거라 ^{α1}했지
 말을 건네는 방식

차심으로 찾잔을 길들이는 것

E2 뜨거운 찾잔이 금 속을 파고들어 가
 그곳 색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E3 1~3행에서 발견한 '차심'이 만들어진 과정을 제시함

E4 1~3행에서 발견한 '차심'이 만들어진 과정과 결말과 상처가 역설적으로 보완의 계기가 된다는 인식을 드러냄

E5 4~8행에서 '차심'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효과를 바탕으로, 고통을 통해 그릇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차심'에 대해 '차의 마음'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남

E6 '차심'을 통해 떠올린 이별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며, 관계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냄

E7 1~10행에 제시된 '차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 적용함

E8 상대를 지지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의 청자를 분명하게 제시함

EBS는 이렇게 물었다 + α

α1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근감을 느끼게 함

E1 '차심'에 대한 화자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 줌

E2 1~3행에서 발견한 '차심'이 만들어진 과정을 제시함

α2 의인화를 통해 찾잔에 잔금이 생기는 과정을 나타냄

E3 '잔금'의 가치를 변화하게 하는 존재감

E4 1~3행에서 발견한 '차심'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나열함

α3 차심이 금을 매워 그곳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듯 결말과 상처가 역설적으로 보완의 계기가 된다는 인식을 드러냄

E5 4~8행에서 '차심'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효과를 바탕으로, 고통을 통해 그릇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차심'에 대해 '차의 마음'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남

E6 '차심'을 통해 떠올린 이별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며, 관계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냄

E7 1~10행에 제시된 '차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 적용함

E8 상대를 지지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의 청자를 분명하게 제시함

1109보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해설 P.06

(가)
 어제도 허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세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삼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정주 동림 구심이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밭에 오면 밭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백석, 「적막강산」 -

- 발해제: 들 배추, 아생 배추의 방언
- 달거기: 늙은 장끼

(다)
 장부의 하술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 기출 문제로 확인하기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작품들은 해당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 작품의 바로 뒤에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 EBS <보기>의 공식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보기>의 내용과 작품의 근거를 통해 해석 가능한 내용을 공식화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BS 연계 교재 <보기> 문제 에서 어떠한 내용을 묻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품 파고들기

학술지와 논문을 기반으로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과 작가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고난도 <보기> 문제에 실전 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작품 마무리

작품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 모았습니다. 작품의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S <보기>의 공식

| 작품 | 작가 | 현실 | 독자 | 기타 |

<보기>의 내용

회자는 다른 대상과 물리적 심리적인 거리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됨

회자는 심화속이거나 심리적인 거리가 발생한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됨

회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이면을 발견하는 역설적인 인식을 보여 줌으로써, 삶에 대해 성찰하고 내적인 성숙을

작품의 근거

'갈라진 나와 나 사이'

'수백 년 동안 내로 오는 진예성 / 차심만 우러도 차 맛이 난다는데'

해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음

고통의 경향은 내면화해서 성숙해졌기 때문임

작품 파고들기

• 결정처럼 보이는 것의 효용

「차심」은 첫잔의 결정처럼 보이는 「차심」에서는 잔금이 차심을 형성하여 준다. 흔히 결정은 부정적인 것이며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욕 단단하게 만들고 병균을 막아, 뜨거운 첫달이 글 속을 파고들어 차심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잔금은 그릇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고통을 치유하고 관계를 더이를 통해 갈라진 관계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이 과정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킨다. 결국 결정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이 관계를 '잔금'에 비유하여 그 관계가 성장하고 증진되는 과정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작품 마무리

▶ 주제: 상처와 고통을 거쳐 인간관계 찾기

▶ 표현상의 특징

- 상징 [문1] 1행 '차심', 4행 '잔금'
- 말을 건네는 방식 [문2] 1행 '잔금'
- 의인 [문3] 4행 '흙과 유약', 7행 '잔금'

✓ 친절하고 자세한 정답과 해설

정·오답 선지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1 김소월 「길」

·문제 P.020

2. ㉔

[정답 풀이]

- 정답 1. ① 2. ㉔ 3. ㉔ 4. ⑤ 5. ㉔ 6. ③

(가)에서 '가리키는 길'을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화자와 달리 길을 잘 가고 있으므로 화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가리키는'과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인해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잘 곳이 없음에도 '오늘도 어디론가' 길을 가야 하는 화자의 상황은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한다.

② (가)에서 '오라는 곳'이 없음에도 어디론가 가야 하는 화자의 상황은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한다.

[1~6] 1109모범

김소월, 「길」 / 백석, 「적막강산」 / 이산익, 「단가 육장」

INTRO

현대시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 2026 수능 P.010
- 2026 9평 P.011
- 2026 6평 P.012

- 01 김소월, 길 P.016
- 02 이육사, 하나씩의 별 P.022
- 03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P.030
- 04 구상, 초토의 시 1 P.033
- 05 정지용, 오월 소식 P.038
- 06 김광균, 와사등 P.041
- 07 김기림, 연륜 P.048
- 08 박재삼, 정릉 살면서 P.055
- 09 이육사, 꽃 P.058
- 10 이성부, 누룩 P.063
- 11 김규동, 나비와 광장 P.066
- 12 이형기, 민들레꽃 P.069
- 13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P.072
- 14 황동규, 달밤 P.077
- 15 조지훈, 눈 오는 날에 P.079
- 16 이수익, 유등제 P.082
- 17 신동집, 포스터 속의 비둘기 P.085
- 18 최승호, 대설주의보 P.088
- 19 이성복, 그 여름의 끝 P.093
- 20 김명인, 그 나무 P.097
- 21 오세영, 원시 P.102
- 22 손택수, 차심 P.104
- 23 고재중, 면면함에 대하여 P.106
- 24 송수권, 머느리밥풀꽃 P.111
- 25 한용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P.114
- 26 신경림, 산에 대하여 P.117
- 27 윤동주, 참회록 P.120
- 28 허형만, 녹을 닦으며-공초 14 P.123

29	김기택, 멸치	P.128
30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P.136
31	김혜순, 잘 익은 사과	P.139
32	문태준,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P.142
33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P.145
34	나희덕, 사과밭을 지나며	P.148
35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P.151
36	문정희, 흐름에 대하여	P.153

혼자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10일 완성 추천 PLAN

훈련도감-E 수특정복 [현대시]

DAY	날짜	작품	학습 CHECK
1	/	INTRO 2026학년도 평가원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input type="checkbox"/>
2	/	01 김소월, 「길」 02 이용악, 「하나씩의 별」 03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04 구상, 「초토의 시 1」	<input type="checkbox"/>
3	/	05 정지용, 「오월 소식」 06 김광균, 「와사등」 07 김기림, 「연료」 08 박재삼, 「정릉 살면서」	<input type="checkbox"/>
4	/	09 이육사, 「꽃」 10 이성부, 「누룩」 11 김규동, 「나비와 광장」 12 이형기, 「민들레꽃」	<input type="checkbox"/>
5	/	13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14 황동규, 「달밤」 15 조지훈, 「눈 오는 날에」 16 이수익, 「유등제」	<input type="checkbox"/>
6	/	17 신동집, 「포스터 속의 비둘기」 18 최승호, 「대설주의보」 19 이성복, 「그 여름의 끝」 20 김명인, 「그 나무」	<input type="checkbox"/>
7	/	21 오세영, 「원시」 22 손택수, 「차심」 23 고재중, 「면면함에 대하여」 24 송수권, 「며느리밥풀꽃」	<input type="checkbox"/>
8	/	25 한용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26 신경림, 「산에 대하여」 27 윤동주, 「참회록」 28 허형만, 「녹을 닦으며—공초 14」	<input type="checkbox"/>
9	/	29 김기택, 「멸치」 30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31 김혜순, 「잘 익은 사과」 32 문태준,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input type="checkbox"/>
10	/	33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34 나희덕, 「사과밭을 지나며」 35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36 문정희, 「흐름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INTRO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최근 수능 및 모의평가에서 현대시는 모두 EBS 연계 작품이 제시되고 있어, 현대시는 연계 교재에 실린 작품의 전문이 수록되어 출제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작품 해석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향이 필요해. 먼저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연계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학습 방향을 잡아 보자.

2026 수능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해설 P.02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짝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쫓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
이별까지 나는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

1. 윗글을 읽고 ○ 또는 ✕로 답하시오.

- 1-1 자연을 관조하며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 ✕
- 1-2 가정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

2. 윗글을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 또는 ✕로 답하시오.

보기

윗글은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할 때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2-1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 ✕
- 2-2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한다. ○ ✕
- 2-3 '질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 ✕

3. ㉠~㉤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
- ② 화자는 ㉢가 내는 소리와 ㉣의 움직임을 통해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임을 짐작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와 ㉣가 감나무에서 만났다가 한순간에 헤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사랑이 끝났음을 떠올리고 있다.
- ④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를 만나기도 하고 ㉡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유의미하다고 여기고 있다.
- ⑤ 화자는 ㉠와 ㉣가 감나무를 떠난 후에 ㉠와 ㉣가 오는 것을 보며 머지않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짚을 벗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4. 윗글을 읽고 또는 로 답하시오.

- 4-1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4-2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4-3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에서 촉발된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5. 윗글을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또는 로 답하시오.

보기

시는 보조 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시에서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5-1 '짚'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벗은 구두'를,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과거를 힘겨웠다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5-2 '시야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화자의 평온한 내면 상태를 드러낸다.
- 5-3 '해가 저물' 때의 심리를 '설레는 구름'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화자의 개성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 5-4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다.

6. 윗글을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또는 로 답하시오.

보기

선생님: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윗글에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요.

- 6-1 화자는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섭리에 주목해 나이 들이 당연함을 부각한다.
- 6-2 화자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 6-3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 6-4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 6-5 화자는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 황혼기의 불안전함을 부각한다.



현대시

KEYWORD #방향 #고향의 상실 #비애감 #길의 의미 #유랑민의 삶 #리듬감

작품 풀어 읽기

: 시적 대상

어제도 하룻밤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화자의 행위가 지속됨을 드러냄

E1 3음보 율격

α1 나그네 집에

화자의 외로운 처지

α2 가마귀 E2 가왱가왱 울며 E3 새었소.

감정 이입 / 음성 상징어 / 말을 건네는 방식

• 방향하는 나그네 처지인 화자의 쓸쓸함과 불안감 [1연]

오늘은

또 몇 십 리

상황의 지속

E1 3음보 율격 변주

어디로 갈까.

의문형 종결 어미 반복

• 불명확한 행선지에 대한 고민을 반복함 [2연]

산으로 올라갈까

반복

자문자답
(목적지 없이 방향하는 화자의 막막함을 강조함)

들로 갈까

반복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E3 가오.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처지이지만 갈 곳이 없음을 자각함

• 오라는 곳이 없어 갈 곳이 없는 막막한 처지 [3연]

말 E3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관산(郭山)

평안북도의 지역, 김소월의 고향

차(車) 가고 배 가는 E3 곳이라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가는 방법의 문제가 아님

• 고향인 정주 관산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 [4연]

여보소 공중에

저 E4 α3 기러기

대비(기러기와 화자)

반복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기러기에게 말을 건네며 갈 곳 없는 화자의 답답함을 부각함

• 자유롭게 공중을 나는 기러기에게 방향을 물음 [5연]

EBS는 이렇게 물었다 + α

• E1 3음보 율격을 사용하면서도 시행의 길이를 달리하는 변주를 통해 현대시의 운율을 형성함

• α1 안정적인 공간인 '집'이 아닌, 떠돌이 신세인 화자가 정착하지 못하고 방향하는 '길'을 의미하며, 이는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상황을 드러냄

• α2 '가마귀'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자연물로, '가왱가왱' 우는 소리를 통해 쓸쓸함과 불안함을 부각함

• E2 동일한 단어를 중첩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E3 청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소'와 '-오' 등의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E4 자유롭게 비상하는 '기러기'의 이미지와 방향하는 화자의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한 심리를 드러냄

여보소 공중에 ^{반복}
저 기러기

E1 열 십자(十字) 복판에 ^{반복('소')} α3 「내」가 ^{반복('소')} E3 「섰소」.
동서남북의 갈림길 / 화자에게 주어진 명확한 방향이 없음

• 갈림길 한가운데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함 [6연]

음성 상징어
E2 「갈래갈래」 갈린 길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역사적 흐름

길이라도

α4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반복('소')} E3 「없소」.
부사의 활용(부정적 현실 인식과 절망감)

• 갈 곳 없는 화자의 비극적 처지와 절망감 [7연]

*바이: 전혀.

• α3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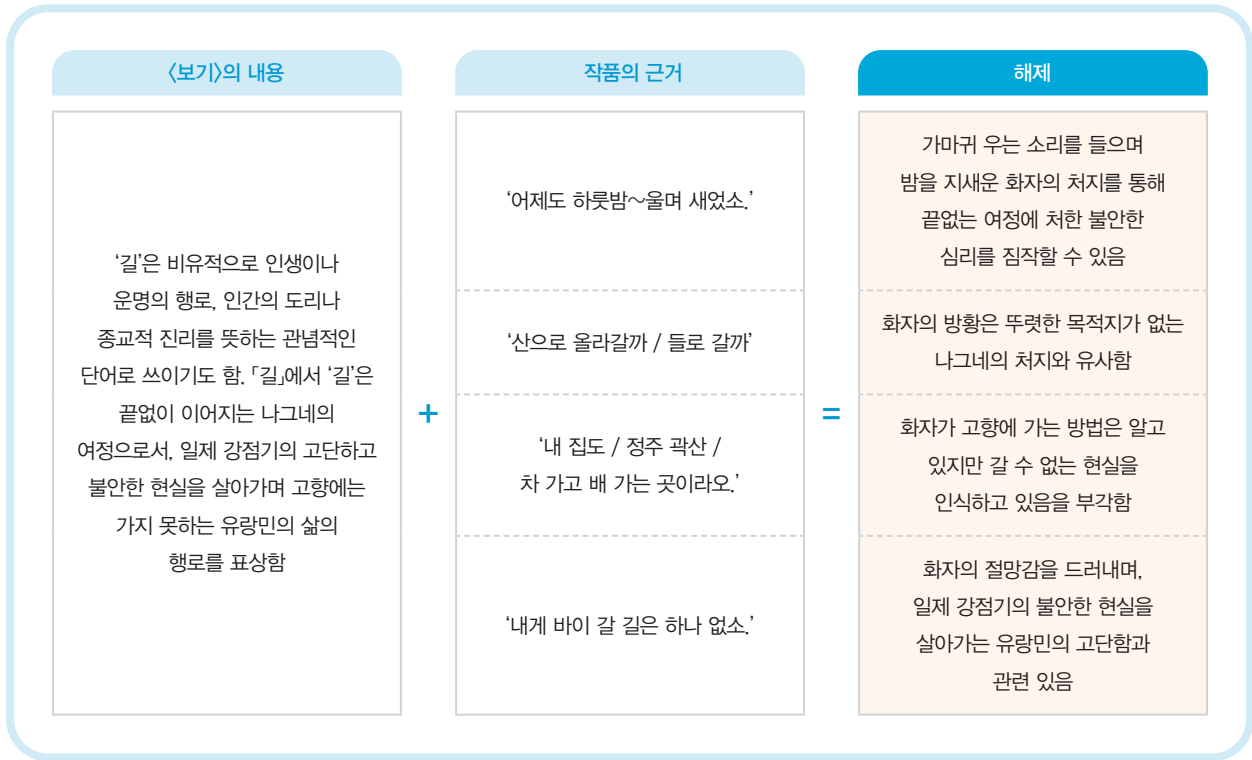
기러기	→	'나'(화자)
자유롭게 공중을 날아 다니는 존재로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처 없이 유랑하는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을 드러내는 존재

• α4 '전혀'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부사 '바이'를 사용하여 일제 강점기의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유랑민의 절망감을 강조함

EBS <보기>의 공식

| 작품 | 작가 | 현실 | 독자 | 기타 |

<보기>의 내용	+	작품의 근거	=	해제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고전 시가와 달리, 현대시의 리듬은 반복, 다양한 변주 등을 통해 내적 규범을 창출함	+	'어제도 하룻밤~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시행의 길이를 각 연마다 다양하게 변주한 것은 내적 규범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는 현대시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음
「길」은 호흡의 속도와 길이 등을 조절하는 율격을 기반으로 하며 종결 표현을 다양화하는 등의 요소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왓가왓 울며 새었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썼소.'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호흡을 조절하는 율격을 통해 시의 리듬감을 형성함 '-오'와 '-소' 등의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청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드러낸 것은 전체적인 리듬감 형성에 기여함
「길」은 동일한 단어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표현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함	+	'가마귀 가왓가왓 울며 새었소.' '갈래갈래 갈린 길'	=	'가왓가왓'과 '갈래갈래' 등 동일한 단어를 중첩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드러냄



작품 파고들기

• 민요조 율격의 근대적 재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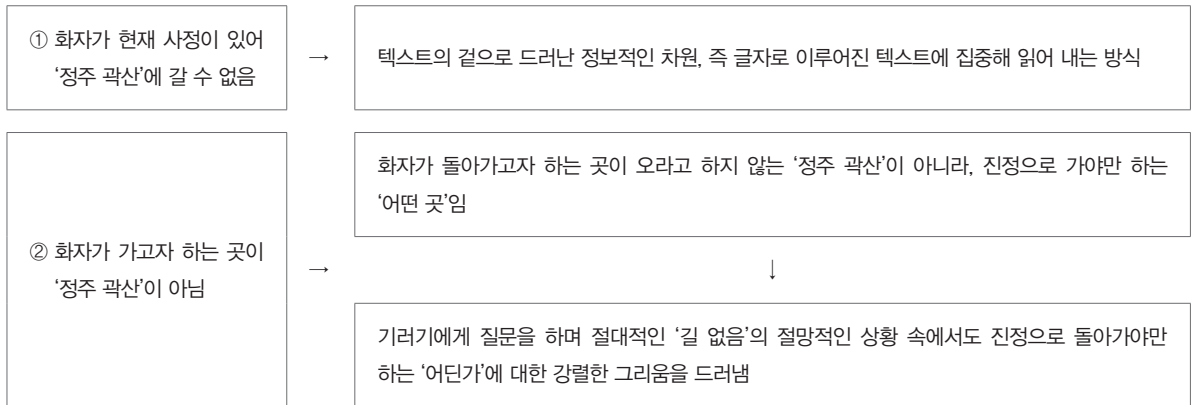
김소월의 시에서는 '오늘은 / 또 몇 십 리 / 어디로 갈까.'와 같이 3음보가 자주 등장한다. 김소월의 시에 등장하는 3음보는 전통 민요를 단순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근대 자유시의 형태 속에서 재창조한 율격이다. 김소월은 3음보라는 전통적 기틀을 차용하면서도 각 행의 배열과 호흡을 의도적으로 변형하여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김소월의 율격은 맹목적인 정형률의 반복을 넘어, 전통성을 계승함과 동시에 한국 현대시의 음악적 방향성을 제시한 독창적인 미학적 성취라고 평가되고 있다.

• 「길」에 드러난 장소애

김소월의 시에서 '길'은 장소 상실로 인한 유랑 의식과 고립감을 함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김소월의 시에서 길은 아무런 목적지 없이, 지속적인 방향의 궤적을 보인다.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라는 고백을 통해 화자의 고립감은 더욱 강화되며, 집과 고향을 빼앗긴 인간의 삶은 '갈래갈래' 찢긴 길처럼 방향감을 상실하고 돌아갈 길 없는 폐허에 직면해 있다. 김소월의 투철한 현실 인식이 드러내는 실향 의식과 정처 없는 방향은 극단적 장소 상실을 경험해야 했던 시인의 비극적 장소애를 증명한다.

• '정주 광산'의 모순

'내 집'이 있는 '정주 광산'은 '차 가고 배 가는 곳'이지만, '그곳'에 갈 수 없다는 일종의 역설적인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적 말하기에 서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작품 마무리

▶ 주제: 길을 잃고 떠도는 유랑인의 비애

▶ 표현상의 특징

- 3음보 율격의 변주
- 보조사의 활용 **근거** 1연 '어제도'
- 음성 상징어 **근거** 1연 '가왁가왁', 7연 '갈래갈래'
- 말을 건네는 방식 **근거** 1연 '새엿소', 3연 '못 가오', 4연 '곳이라오', 6연 '섰소', 7연 '없소' 등
- 종결 어미의 반복 **근거** 1연, 6연, 7연 '-소', 3연, 4연 '-오'
- 동일한 시행의 반복 **근거** 5연, 6연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 대비 **근거** 5연 '기러기'와 6연 '내' 등
- 부사의 활용 **근거** 7연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객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북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나)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별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술밭에 빼꾸기 소리
잔술밭에 털거기* 소리

별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①별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백석, 「적막강산」 -

*벌배채: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털거기: 늪은 장끼.

(다)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②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올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랜시고
③두어라 우로(雨露)곤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④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⑤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⑥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쉬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 이신의, 「단가 육장」 -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

*공량: 들보.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2.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도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함.
- ② ‘오라는 곳’이 없음.
- ③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함.
- ④ ‘기러기’와 떨어져 있음.
- ⑤ 갈 곳 없이 ‘열십자 복판’에 서 있음.

3.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1행은 ‘별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별’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별’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 ③ 2연과 3연은 ‘산’과 ‘별’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4연은 ‘산’이 ‘별’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 ⑤ 5연은 ‘산’과 ‘별’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리한다.

4.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의 ‘정주 곽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 ④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 ⑤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5. (다)의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보기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6.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1장
- ② 2장
- ③ 3장
- ④ 5장
- ⑤ 6장

KEYWORD #해방 전후의 불안과 희망 #유랑민의 삶 #별의 의미 #시구의 반복

작품 **풀어 읽기**

EBS는 이렇게 물었다 + α

: 시적 대상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색채어 / 유랑민의 암울한 현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올라 간신히 고향에 돌아가는 유랑민과 화자의 처지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E1 반복 / 수미상관

한결같이 쳐다보는 **E2** **하나씩의 별**

저마다 품는 희망

•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서 유랑민들과 함께 별을 바라봄 [1연]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힘한 땅에서 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α1 열거(다양한 사연을 지닌 유랑민들)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

열거(어려운 처지에도 동지애를 나눔)

나뉘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제각기의 사정을 가진 유랑민들과 동질감을 느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고향이 아닌 '서울'로 향하는 화자의 처지

• 북방에서 고단하게 살다가 귀향하는 유랑민들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음 [2연]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를

색채어 / 고향을 떠나야 했던 유랑민들의 서럽고 암울했을 심정을 떠올림

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혈뺏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고단한 삶을 겪은 유랑민들과 동질감을 느낌

마찬가지로 혈뺏은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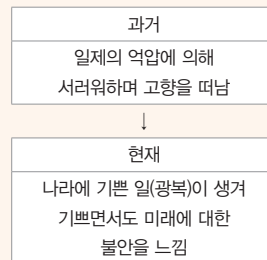
α2

• E1 1연과 4연에서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 E2 각기 다른 사정 속에서 고향과 미래를 떠올리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형상화함

• α1 일제의 억압에 의해 조국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열거하여 동질감을 드러냄

• α2 유랑민들의 과거와 현재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조국의 광복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화자의 고향을 드러냄

• 광복의 기쁨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함께 느낌 [3연]

총을 안고 빨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α3** 별
명사 종결

E1 반복 / 수미상관

• 불안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별을 바라봄 [4연]

*자무스: 중국의 송화강 상류에 있는, 러시아와의 국경 가까이에 있는 도시.

*빨가: 폴카, 보헤미아 지방의 경쾌한 무곡(舞曲).

• α3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여운을 형성함

EBS <보기>의 공식

| 작품 | 작가 | 현실 | 독자 | 기타 |

<보기>의 내용	작품의 근거	해제
이용악의 해방기 시들은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소회와 감격을 그리며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고뇌를 담고 있음	+ '화물 열차의 /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로 시상을 여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과 관련됨
이용악은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 특히 간도 유랑민들이 겪었던 비참한 삶에 주목하여 절박한 시대적 상황을 형상화함	+ '험한 땅에서 험한 번 치르고 /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 남도 사람들'	= 당대 유랑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겪었을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함
「하나씩의 별」은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랑민과, 변환기의 현실 속에서 이향을 결행해야 하는 화자가 공존하는 시적 상황을 통해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며, 특히 해방 이후 서로 동지애를 나누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음	+ '내사 서울이 그리워 /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혈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혈벗은 나요'	= '함경도 사내'인 '나'가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달리 이향을 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의미함 혼란스러운 시국에 같은 열차를 타고 함께 귀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지애를 드러냄

작품 파고들기

• 「하나씩의 별」에 나타난 해방 전후의 현실

일제 강점기에 노동자와 농민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 만주, 시베리아 등지로 이주했고 해방 이후에는 기대를 안고 조선으로 귀국했으나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았다. 해방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하나씩의 별」에는 당시 유랑민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 작품에서는 고향을 등지고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미래가 '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만큼이나 불투명하며,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현실도 '탄탄히 잠겨진 '화물 열차'의 '검은 문'만큼이나 냉혹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하나씩의 별」에서 화자가 서울로 향하는 이유

이용악의 작품은 주로 일제 강점기에는 북방 지향성을, 일제 말과 해방기에는 서울 지향성을 드러낸다. 이용악의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은 산악 지대로 폐쇄적인 공간이었으나 당시의 서울은 현실적 문제가 집약되어 있어 지식인의 사회 참여 의식에 부응하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이용악의 시 「하나씩의 별」에서 해방을 맞이한 화자가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향하는 모습에는 역사의 중심인 서울에서 민중의 현실을 목도하고 이를 작품에 구현하려는 작가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마무리

▶ 주제: 해방기의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유랑민의 삶

▶ 표현상의 특징

- 색채어 **근거** 1연 '검은 문들', 3연 '푸르른 바다'
- 반복, 수미상관 **근거** 1연, 4연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 상징 **근거** 1연 '하나씩의 별'(희망) 등
- 열거 **근거** 2연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
- 명사 종결 **근거** 4연 '별'

INTRO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정답

- 1-1. ✕ 1-2. ○ 2-1. ○ 2-2. ○
- 2-3. ○ 3. ④ 4-1. ✕ 4-2. ○
- 4-3. ✕ 5-1. ○ 5-2. ○ 5-3. ○
- 5-4. ✕ 6-1. ○ 6-2. ○ 6-3. ✕
- 6-4. ○ 6-5. ✕ 7-1. ✕ 7-2. ✕
- 7-3. ○ 7-4. ✕ 8. ⑤ 9-1. ○
- 9-2. ○ 9-3. ○

[1~3] 26수능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1-1. ✕

| 정답 풀이 |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 어찌 바람뿐이라.’ 등에서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연을 관조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감나무가 익어 가는 시적 상황을 화자가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1-2. ○

| 정답 풀이 |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에서 가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땡감들’과 ‘질푸른 감들’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1. ○

| 정답 풀이 |

〈보기〉에 따르면 윗글은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여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를 참고할 때, 윗글에서 감나무는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가진 존재로, 그 아래에 ‘평생을 놓’는 것은 명암이 공존하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

| 정답 풀이 |

〈보기〉에 따르면 윗글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여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윗글에서 화자는 ‘잠 뒤척여 /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계곡 물소리도’ 듣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다림 날로 익고’ ‘서러움까지 익어’ 감들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즉,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3. ○

| 정답 풀이 |

〈보기〉에 따르면 윗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어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윗글에서 화자는 ‘질푸른 감들’이 시간이 흘러 ‘마침내 / 형형 등불을 밝’힌다면, 그때 ‘세상’이 ‘환하고’ ‘하늘’은 ‘부시’리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 ④

| 정답 풀이 |

윗글의 화자는 ‘그리움 날로 자라면’ ‘땡감들’도 커 간다고 하며 사랑이 끝난 뒤에 성숙해 가는 과정을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과 빗대어 보고 있다. ‘땡감들’이 커 가는 동안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를 맞아 보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질푸른 감들, 마침내 / 형형 등불을 밝’힌다고 했으므로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와 ㉡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유의미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윗글에서 화자는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바람)뿐이 아니라면서 ㉣(오색딱다구리)도 감나무 잎새를 흔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을 뿐, ㉢이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지도 않다.

06 김광균 「와사등」

• 문제 P.044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⑤ 5. ③
6. ① 7. ② 8. ② 9. ③

[1~3] 1506모평B

김광균, 「와사등」 / 박용래, 「울타리 밖」

1. ③

| 정답 풀이 |

(가)는 '늘어선 고층'을 '창백한 묘석'에 비유하고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에 비유하여 생명력 없고 황폐한 도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마을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① (가)는 1연이 변형되어 마지막 5연에 다시 나타나므로 수미상관의 방식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가)에는 공허함과 고독이, (나)에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공간에 대한 소망이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가)와 (나) 모두 정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의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에서 영탄적 표현이 쓰였으나 이는 대상에 대한 경외감과 무관하다. (나)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 ④ (가)에서는 '등불', '찬란한 야경' 등의 밝음과 관련된 시어와 '어둠', '그림자' 등의 어둠과 관련된 시어가 사용되었으나, 이와 같은 시어들을 대조하여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지는 않았다.
- ⑤ (가)는 '내 호올로', '내 어디로' 등에서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여 '눈물겹고나'와 같이 직접적인 정서 표현을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주제에 공감하게 하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2. ②

| 정답 풀이 |

(가)는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에서 시각적 이미지인 '어둠'을 피부에 스미는 대상으로 축약화하여 나타내었으나, 이는 화자가 느끼는 도시 문명의 음습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일 뿐,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 ① (가)의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은 '비인 하늘'이라는 적막한 배경에 걸려 있는 하나의 '등불'에 주목하게 하여, '호올로 어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 ③ (가)의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은 '길—게 늘인 그림자'에서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화자의 '무거운 비애'를 강조하고 이를 느린 낭송의 호흡과 조화시키고 있다.
- ④ (나)의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은 '-듯'이라는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의 다양한 소재가 '천연'한 동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나)의 3연에서는 다른 연과 달리 ㉠(천연히)만으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마을'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꾸밈없는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3. ②

| 정답 풀이 |

<보기>에 따르면 (가)는 '회화적 이미지'를 통해 '현대 문명'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보여 주며, (나)는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을 드러낸다. (가)는 '늘어선 고층'을 '창백한 묘석'에,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에 빗대어 도시의 황폐함을 표현했고, (나)는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에서 '마을'이 인위적인 요소가 배제된 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지속되는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고, (나)에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 ① (가)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등에서, (나)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살리고 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가)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고, (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가)에서 화자는 도시의 '찬란한 야경'을 형클어진 '무성한 잡초'와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인간과 문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데서 비롯된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 '마을'은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어 울타리 안인 인간의 세계와 울타리 밖인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는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과 같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표현을 한 차례 사용했으나, (가)는 '슬픈', '낮설은', '비에' 등 감정을 노출하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나타냈다.
- ⑤ <보기>에 따르면 (가)는 '현대 문명'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드러냈으며, (나)는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했다. (가)는 '늘어난 고층', '찬란한 야경' 등 도시 문명과 관련된 시어를 활용하여 현대 문명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드러낸 반면 (나)는 '마늘쪽', '들길'과 같은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냈다.

[4~9] 08수능

김광균, 「와사등」 / 김수영, 「사령」 / 권호문, 「한거심팔곡」

4. ⑤

| 정답 풀이 |

(가)의 화자는 도시의 '낮설은 거리'와 '공허한 군중' 속에 섞여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고뇌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자유를 말하는 '활자'와 달리, 침묵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내면의 고뇌에 빠져 있다.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는 공적인 삶과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은둔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 모두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가)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느껴지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화자 역시 부정적 현실에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뿐, 도피하고자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가)와 (다)에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방향 상실이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라고 말하며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것에 대한 혼란을 표현하고 있으며, (다)에서도 화자는 '이 몸이 어찌할꼬' 등의 표현을 통해 미래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상태임을 드러낸다.

- ③ (나)에서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무력감과 자조적인 성찰이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세계와 맞서려는 대결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역시 삶의 갈등과 고뇌는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세계와 맞서 싸우려는 대결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의 화자는 도시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고뇌에 빠져 있을 뿐이며, (나)의 화자는 행동하지 못하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며 자조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려 했으나 지난 십 년을 허둥대며 보내온 것 같다는 인식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③

| 정답 풀이 |

(가)는 1연과 5연에 유사한 시행을 배치하여 대응시킴으로써 화자의 절망감과 비애를 심화하고 있으며, (나)는 1연과 5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부끄러움과 자조적 태도를 심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① (가)는 '늘어난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에서 늘어서 있는 고층 건물들을 '창백한 묘석'에 비유하여 도시의 황폐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조적 어휘를 반복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는 '말'과 '고요함'이라는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유를 말하는' '활자'와 '영'이 '죽어 있는' '나'를 대조되는 시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지는 않는다.
- ② (가)에서는 의인화를 활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나)에서는 '활자'가 '자유를 말하는' 존재라며 '벗', '그대'라고 표현한 것에서 의인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활자'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④ (가)에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나)에서 화자는 '활자'를 '벗', '그대'라고 부르며 말을 건네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와 '활자' 간의 친밀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화자는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 '활자'와, 자유와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나'를 대조하고 있다.
- ⑤ (가)는 '고층'과 '야경'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도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며, (나)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역설과 반어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EBS 연계 작품들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훈련도감-E 수특정복 시리즈



현대시 편



고전시가 편



현대산문 편



고전산문 편

-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강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을 통해 연계 작품을 심도 있고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작품과 관련된 전 기출을 수록하여 훈련도감-E 수특정복 시리즈만으로도 연계 출제 대비가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EBS 연계 공부법이 궁금하다면 '국어는 박광일' 유튜브의 관련 영상을 참고하세요.



숫자로 보는

도서출판 홀수



2014년

도서출판 홀수
설립 연도



340종

도서출판 홀수가
발간한 책 종수



200년↑

도서출판 홀수 직원들이
수능 국어를 연구한
시간의 총합



10년

끊임없는 개정과 개선으로
홀수 기출 시리즈의
완성도를 높여 온 시간



150만 부

도서출판 홀수
교재 누적 판매량



10만 건↑

홀수 기출 제작 시
참고한 수험생들의
Q&A 개수



1억 원↑

홀수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지원한 금액



5,037명

홀수의 후원을 통해
마음이 건강해진
청소년의 수

정가 25,000원
ISBN 979-11-94350-48-4

